



최근 기부 및 자발적 상호부조의 변화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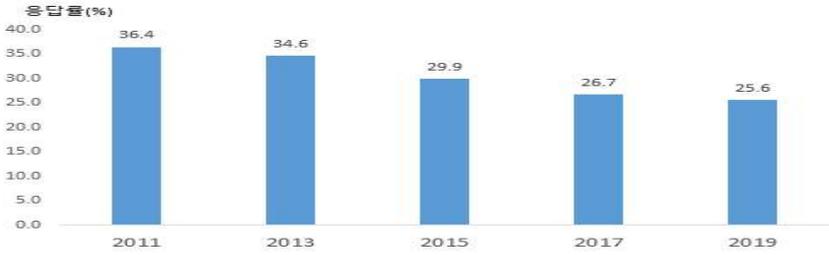
연구

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. 반면 기부와 유사한 '비영리단체로 이전'이나 사적 상호부조 성격의 '가구 간 이전지출'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경우,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회복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. 그러나 이 두 지표들은 2020년 상반기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'재난 지원금 등 공적 부조의 확대', '가구 스스로의 위험 대비 수요 증가', '종교 활동의 위축' 등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

■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(그림 1) 참조

-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'공적 복지'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, '기부'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
- 통계청 「사회조사」에 따르면,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¹⁾ 참여 비율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36.4%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25.6%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1〉 기부참여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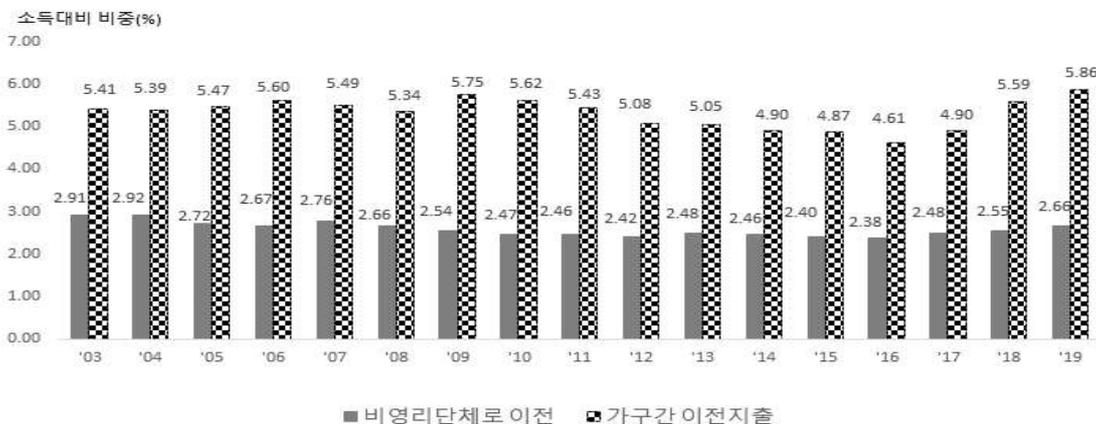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

1) 「사회조사」의 '기부'는 종교단체, 모금단체, 언론기관, 직장 등을 통한 현금 및 물품의 무상 공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

■ 「가계동향조사」의 ‘비영리단체로 이전²⁾과 ‘가구 간 이전지출³⁾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기부 참여율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⁴⁾

- 기부와 가장 유사한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의 경우 2003년 소득 대비 비중이 2.91%로 나타났으나, 2016년 2.38%로 낮아진 후 다시 상승하여 2019년에는 2.66% 수준에 이룸
 - 「사회 조사」의 기부 참여율과 같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,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 수준의 향상에 비해 기부의 비중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친족 간 사적인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의 경우, 2009년 5.75%에서 2016년 4.61%로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5.86%까지 크게 상승함
 - 이는 친족 간 금전적 의존도가 2016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의미함

〈그림 2〉 소득대비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 및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 비중 추이(2인 이상, 전국)



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■ 최근 개편된 「가계동향조사」에 따르면 2020년 들어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과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(〈그림 2〉, 〈표 1〉 참조)

- 2020년 상반기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과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2%대의 감소를 기록함
-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의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소득 대비 비중 감소폭 0.36%p를 개편 전 표본의 2019년 비중 2.66%에 적용하면, 2016년의 기부 비중 2.38%보다 낮은 수준인 2.30%가 산출됨
 -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의 경우 같은 기간 소득 대비 비중이 0.87%p 하락했으며, 이를 개편 전 표본의 2019년 비중 5.86%에 적용하면 2013년 수준(5.05%)보다 낮은 4.99%로 나타남

2)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기부금과 노조·친목회비 등 단체회비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성격상 「사회 조사」의 ‘기부’와 가깝다고 할 수 있음
 3) 다른 가구(부모·자녀·친지 등)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기부보다는 사적인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
 4) 「가계동향조사」는 가구 단위 조사이고, 「사회 조사」는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두 조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,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

〈표 1〉 가계의 이전 지출, 이전 소득 관련 주요 지표 동향(2인 이상, 전국)

(단위: 천 원)

구분	2019년 상반기	2020년 상반기	증감율(%)
소득	10,201	10,630	4.21
처분가능소득 (A)	8,121	8,592	5.80
소비지출 (B)	5,896	5,790	-1.81
흑자액 (A-B)	2,224	2,802	25.98
흑자율(저축률) (A-B)/A	(27.39)	(32.61)	(5.22)
비영리단체로 이전	232	204	-12.13
소득 대비 비중	(2.28)	(1.92)	(-0.36)
가구 간 이전지출	556	487	-12.35
소득 대비 비중	(5.45)	(4.58)	(-0.87)
공적이전소득	739	1,228	66.24
소득 대비 비중	(7.24)	(11.56)	(4.31)
사적이전소득	470	453	-3.75
소득 대비 비중	(4.61)	(4.26)	(-0.35)

주: ()은 비중 또는 비중의 변화를 표기하고 있음
 자료: 통계청, 「가계동향조사」

■ 2020년 상반기 기부와 사적 상호부조의 급속한 감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, 공적 부조의 확대, 가구 스스로의 위험 대비 수요의 증가, 종교 활동의 위축 등 다양한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(〈표 1〉 참조)

- 재난지원금 등 공적 부조의 증가로 가계가 사적부문에서 별도로 기부를 하거나 친족 간 상호부조할 필요성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임
 - 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66.24%나 증가하였음
-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타인을 위한 기부나 이전 지출보다는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흑자 규모를 확충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음
 - 2020년 상반기 흑자(저축)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5.98%나 증가하여 가계의 여유자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과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함)
 - 코로나 19 등에 따른 종교 활동의 위축으로 기부 여건이 악화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임^{ki9}

5) 분기별 소비지출의 경우 2020년 1/4분기 전년 동기 대비 - 5.98%에서 2/4분기 2.69%로 상승 반전된 반면, ‘비영리단체로 이전’과 ‘가구 간 이전지출’은 1/4, 2/4분기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율을 보여 타인을 위한 사적 보조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